

2023. 6. 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724-0138
교육대외협력과장	이진현	724-0190
담 당 자	이재경	724-0194
누리집	https://museum.seoul.go.kr/ 전시 → 기획전시 → 현재전시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7쪽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에서 만나는 '상하이 은빛 보물'

- 상하이역사박물관 소장품 특별전 <찬란한 은빛 보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8월 27일까지 개최
- 중국 대표 도시박물관인 상하이역사박물관 소장 은기銀器 100선 서울에 선보여
- 고대 장신구부터 근대 트로피, 방패, 그릇 등 은기에 담긴 상하이 역사와 상하이 사람들의 생활을 조명

-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용석)은 상하이역사박물관(관장 저우첸화 周群華)과 공동으로 <상하이역사박물관 소장품 특별전 '찬란한 은빛 보물'> 국제교류전을 6월 2일(금)부터 8월 27일(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상하이역사박물관간 상호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2018.10.31.)에 따라 개최되는 양방향 교류전시이다. 2023년에는 서울에서 상하이를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하고, 2024년에는 상하이에서 서울을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 상하이역사박물관(上海市歷史博物館, Shanghai History Museum)은 상하이 역사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도시역사박물관으로 상하이경마클럽

(上海跑馬總會) 건물에 2018년 재개관하였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상하이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유물 약 11만 점을 소장하고 있다. 상하이경마클럽건물은 53.3m 높이의 종탑이 있어 상하이의 랜드마크이자 도시의 문화유산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은기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특성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유물이다. 은기라는 특별한 시각을 통해 유물이 품고 있는 상하이의 역사를 소개하고, 상하이 사람들의 생활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 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상하이 고대 은 공예, 제2부는 개항 그리고 번영, 제3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상하이 은 공예를 주제로 한다.

○ 본래 상하이(상해, 上海)는 장강에서 바다로 가는 곳이라는 뜻으로 장강 하구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명나라 시기 성벽이 구축되면서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여 명·청나라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주요 상업 도시로 부상했다. 청나라 말기, 개항장이 되면서 성장은 가속화되었다. 상하이역사박물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은기는 이런 상하이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 현재 상하이는 총면적 $6,340\text{km}^2$ (서울의 10.5배), 2021년 기준 인구 약 2,489만 명으로 중국의 경제·금융·문화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무역 도시이다.

[제1부 상하이 고대 은 공예]

□ 고대 상하이 은기는 정교한 장신구가 대부분이다. 띠고리(대구, 帶鉤)와 비녀, 그리고 명(明) 나라 명문 가족의 무덤에서 출토된 은제 장신구와 고대 상하이 문인들이 사용한 은제 문방구는 당시 상하이 지역의 금속 공예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제2부 개항 그리고 번영]

- 1843년, 개항에 따라 중국 문화와 서양 문화가 융합한 해파문화(海派文化)라는 독특한 지역 문화를 형성했다. 근대 상하이 은기는 해파문화의 영향으로 중국 전통의 금속 공예 기술과 외국의 기술이 융합된 세련되고 독특한 은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해파문화(海派文化, Hai pai culture)

근대 상하이 문화의 지역적 특색을 가리키는 용어다. 중국 강남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개항 이후 상하이에 들어온 서구의 근현대 문화가 융합되어 형성된 상하이 특유의 문화현상이다. 전통적인 고전과 우아함과 근대적인 개방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북경 지역의 경파문화(京派文化, Jing pai culture)와 대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근대 상하이 사람들의 입학과 졸업, 생일, 결혼, 승진 등 기념일에 주고받은 은제 선물,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던 근대 스포츠 행사의 트로피,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던 은기를 통해 개항 후 상하이의 경제적·문화적 번영을 짐작하고 당시 상하이 사람들의 사교와 친교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제3부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상하이 은 공예]

- 개항 이후 상하이 사람들의 은기에 대한 높은 수요는 중국 전통식 세공상회인 은루(銀樓)와 서양식 은기 상점을 상하이로 모여들게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상하이의 상업 문화 경관의 토대가 되었으며, 상하이 은기 산업은 경쟁 속에서 교류, 혁신을 거듭하며 독특한 해파 은기를 만들어냈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금, 은 제품을 제작, 판매하던 상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취급 품목은 은 제품 외에 금 제품 등도 취급했지만, 은 제품을 위주로 취급했던 것에서 유래한 용어가 용례로 굳어지면서 그대로 사용되었다.

-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상하이의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전시된 유물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전시실 내 체험 요소들을 마련하였다. ‘김승욱(충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쌤과 함께’ 설명글은 전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체험 공간에 마련된 촉각 체험은 유물에 새겨진 문양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실에 비치된 활동지는 관람객들이 전시를 탐험할 수 있는 미션을 제공한다. 나들이가 많은 6월, 가족들과 함께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상하이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다.

- 전시 개막에 앞서 주군화 상하이역사박물관장은 “상하이역사박물관이 소장한 은기는 과거 찬란한 강남 문화의 여운을 들려주며, 새롭게 발전해 온 도시 상하이의 역사적 증거물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두 박물관이 심화된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나아가 양국 간의 문화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 또한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상하이역사박물관의 은기 소장품을 서울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상하이가 오늘날 중국에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까지, 그리고 동서양이 융합된 매력적인 도시 ‘동양의 파리’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전시 포스터

璀璨
华光
海上
银珠



SHINING SILVER BEADS
EXHIBITION OF SILVER WARE OF SHANGHAI HISTORY MUSEUM

2023

6.2. ^{fri} -

8.27. ^{sun}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찬란한 은빛 보물

상하이역사박물관 소장품 특별전
上海市历史博物馆馆藏银器展

SMH 서울역사박물관
동행매력 특별전시실

上海市历史博物馆 | 上海革命历史博物馆
SHANGHAI HISTORY MUSEUM | SHANGHAI REVOLUTION HISTORY MUSEUM

붙임 2. 대표 유물 사진

	
<p>은제 동상감 띠고리_한나라</p>	<p>은제 금도금 봉관하피 장식_명나라</p>
	
<p>봉관하피 세부사진</p>	<p>은제 복숭아_청나라</p>
	
<p>졸업 기념 은제 방패_중화민국 시기</p>	<p>'희작등매' 문양 은제 그릇_1927</p>



상하이 자전거 경주 대회 트로피_1904



개항도시간 수영대회 트로피_1934-1935



은제 차 세트_1933



용 무늬 투각 은제 그릇_청나라 말기